

현실을 바탕으로 사전 대책을 수립하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니었을까.

그나마 뒤늦게라도 보다 치밀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이어졌다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당황했기에 경황이 없었다”는 계열 화업계의 해명이 기자의 머릿속에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리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추세가 바로 공동의 대응이나, 선봉장을 필요로 할 때에 ‘나부터’가 아닌 ‘누군가가 먼저’라는 사고의 만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물론 지금까지도 적지않은 현안들과 산업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양계인들과 관련

단체의 노력과 희생에 의해 해결돼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은 몇몇 지도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산업여건하에서, 그것도 작은 정부가 지향될 수밖에 없는 현실속에서 우리 양계산업이 또, 한 단계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임을 양계인들은 냉정히 수용하고 인식의 대전환과 함께 즉시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정확히 인식, 업계를 강력히 리드하고 포용할수 있는 ‘난세의 영웅’ 출현을 기자는 기다려 본다. **양계**

## 네 탓은 이제 그만, 한 힘으로 희망을 찾아서



옥 미 영  
(축산경제신문 기자)

지난해 급작스럽게 발병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여파로 업계 전체

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양계농가와 계열화업체, 관련업체 할 것 없이 모두 인플루엔자로 인한 극심한 고열과 추위, 한파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도처에 남아있는 희망의 불씨들을 되살리고 그것들을 모아 커다란 희망을 불을 지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 모두가 ‘희망읽기’에 나서야 한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소박한 ‘희망읽기’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희망의 환원이야말로 무기력해진 양계업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플루엔자가 휩쓸고 간 상처의 폐허에서 양계업계의 '희망읽기'는 우선 그동안 업계의 오래된 고질적 관습으로 남아있는 '네탓'을 멀리하고 모두가 공생·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으로 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990년 9월 천주교는 김수환 추기경을 중심으로 '내탓이오' 운동을 전개,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정의 종교적 입장을 떠나 사회 각처에 만연된 불신 풍조를 없애고 잘못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탓하며 스스로를 정화하고 각성하자는 것이 이 운동의 뜻이었다.

그러나 우리 양계업계는 갈등구조가 워낙 깊은 때문인지 그동안 '내탓이오'가 파고들 틈이 없었다.

생산과잉으로 인해 농가뿐만 아니라 계열업체가 휘청거리는 육계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종계농가들은 계열업체를, 계열업체들은 종계농가들의 무분별한 과잉 입식을 탓했고 적극적인 수급조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함께 하면서도 '내가 먼저' 이기를 바라만 왔다.

장기불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시도된 원종계 수수 조절도 원종계 업체간 '네탓'이라는 책임 공방으로 정부의 개입하에 가까스로 매듭지을 수 있었다.

양계산물의 수요저변 확대를 위해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자조금 사업은 유독 양계분야만 표류하고 있다. 육계자조금은 계열주체와 농가간 자리잡혀 있는 깊숙한 상호불신과 이해부족으로 서로에게 '네탓'이라

는 책임을 전가하면서 의무나 임의나를 놓고 양계협회와 농협, 계육협회간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산란계 자조금은 종계단체나, 사료회사나, 도계장이나를 놓고 '네가'라는 지루한 실랑이를 벌인지 오래다.

질병 방역과 관련된 살처분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농가들은 정부의 선 보상금 지원 대책을 정부는 농가의 나태한 방역의식만을 탓하고 있다.

이제 우리 업계도 '내탓이오'의 상념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글로벌시대를 맞아 전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업계간 '네탓'은 그야말로 제살 깎아먹기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업계의 생존이 위태로울 만큼 어려운 처지에 놓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업계는 양계산업이 나아가갈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 하나된 힘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양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수급조절 문제부터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한 사양 기술개발문제, 무분별한 닭고기 수입에 따른 대책 등 산적한 과제가 너무도 많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개인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없다.

지금 우리 양계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변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의 상호불신을 털어 버리고 업계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선에 다가서자. '네탓'은 이제 그만! 환골탈태를 결연하게 선언할 때다.